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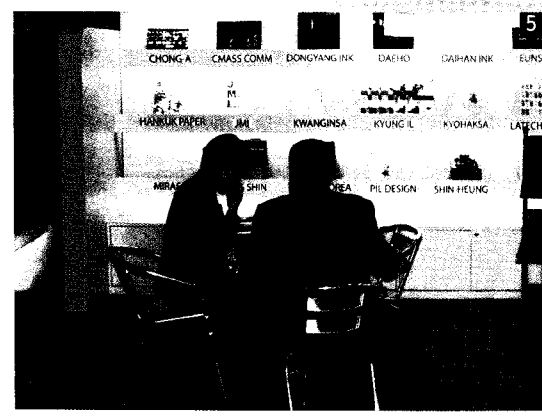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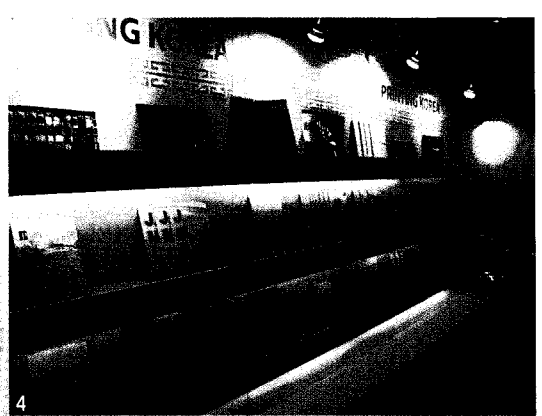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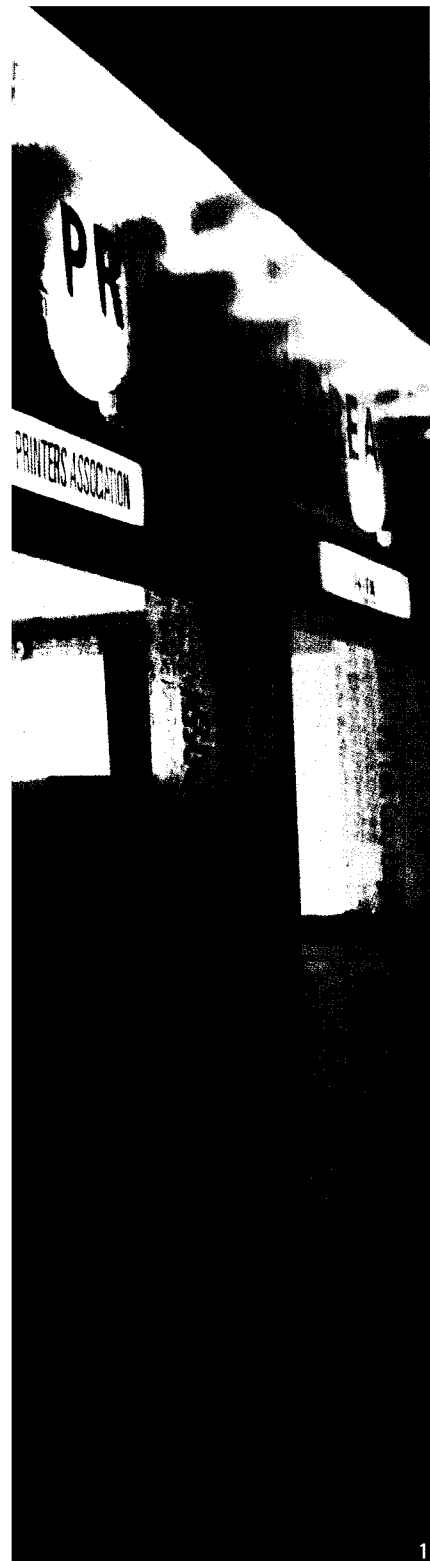
PRINTING KOREA
KOREAN PRINTERS ASSOCIATION

‘환경·교육·디지털’ 시대적 흐름 반영
2817개사 출품, 20만명 관람객 기대 전시회로 성장
이탈산출국인쇄관 조성해 한국인쇄문화 홍보
Print China 2011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광저우 동관현대국제전람센터에서 진행된 프린트차이나 2011 전시회는 지난 1회 대회에 비해 높아진 관심을 받으면서 참가사와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이벤트가 다양하게 열렸으며 주최 측은 1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난 전시회에 비해 50%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8개국, 1261개사에 달하는 출품사는 전 대회에 비해 20.4%가 증가한 것이며 20개국 이상에서 관람객이 찾았다. 70여개 국의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는 등 프린트차이나 2011 전시회를 찾은 사람은 20만 명에 달해 지난대회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환경·교육·디지털 테마로 다양한 전시관 구성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왕 더마오 프린트차이나 2011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는 국제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서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시기에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중국은 정상적인 발전의 궤도로 들어섰고 중국의 인쇄 산업 역시 지난 3년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왕 더마오 위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광둥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 각 국가의 관계 부처와 위원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으며 ‘문

화적 발전을 위한 광둥 지방 건설 프로그램’과 ‘문화적 동관 육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아시아 및 기타 세계 각지에서 폭넓은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프린트차이나 2011은 광둥 모던 인터내셔널 전시장의 전 홀을 사용하여 12만㎡의 방대한 규모로 열렸으며 지난 전시회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규모가 약 50% 증가했다.
세계 18개국 1261개사에서 출품하였고, 지난 전시회에 비해 20.4% 증가한 수치다. 해외 70개국의 구매자들에 의한 사전 등록이 있었고, 20여 나라에서 60개의 단체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지의 50개의 단체도 이미 방문 등록을 사전에 마치는 등 프린트차이나 2011의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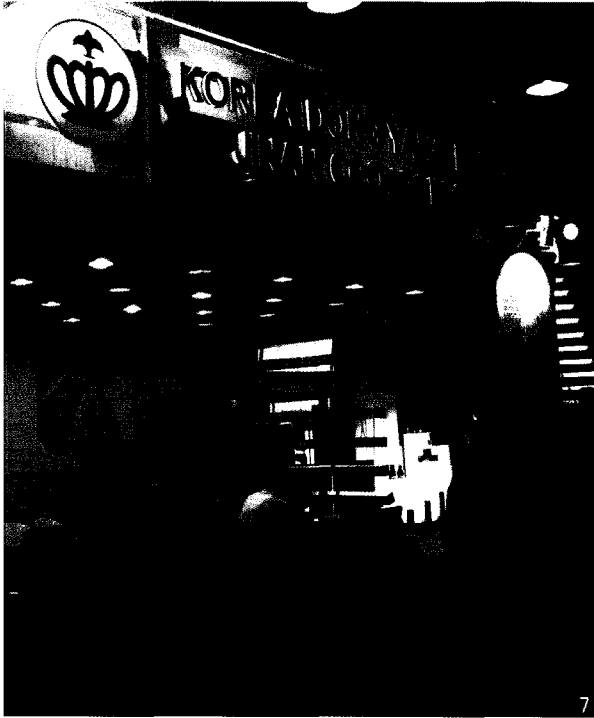
1_프린트차이나 2011 한국인쇄문화관 2_프린트차이나 2011 키메스 3,4,5_한국인쇄문화관 직지체험, 한국 인쇄물 홍보, 상담 6_프린트차이나 2011 개회행사

다양한 전시, 수준 높은 세미나 눈길 끌며

프린트차이나 2011의 메인 테마는 '환경, 고효율, 디지털'이었다. 전시장은 브랜드 홀, 인쇄기기홀, 디지털 및 CIP홀, 골판지 및 칼라 박스 홀, 잉크젯 프린트 홀, 스크린 인쇄 홀, 라벨 및 인쇄 부자재 홀, 파인 프레스워크 및 인쇄 교육 홀 등으로 구분되었고 정기간행물, 신문, 포장, 상업 인쇄, 광고, 영수증, 섬유, 전자 회로, 건축자재, 예술품, 전산 인쇄 등과 관련되는 인쇄 기기들이 선 보였다. 주요 학술행사로써는 제2회 인쇄 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 포럼 (FORUM-PT2011)이 열려 세계적인 기업에서 13명의 인사가 서로 다른 주제로 다이나믹한 발표를 했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FORUM-GP, FORUM-PS, FORUM-PD, FORUM-JP, FORUM-LP 등 약 50여개의 세미나와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 또한 제3회 차이나 프린트 어워드에 대한 시상과 제3회 ASIA PRINT 대회도 치러졌다.

인협, 한국 고인쇄문화와 최신인쇄기술 소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이번 전시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66평방미터에 달하는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하고 직지체험 등 한국 고인쇄문화를 소개했으며 국내 인쇄업체 및 부자재업체의 카탈로그를 비치해 직, 간접적으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장비업체인 기선, 메탈스틱, 피에스텍 등이 한국인쇄문화관 내에 부스를 꾸며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자사의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여 여러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7 프린트차이나 2011 동양잉크 전시관

8 동양잉크 부스를 찾은 최대광 대표이사(오른쪽)와 임기범 상무이사(왼쪽) | 동양잉크 중국 공장의 전경



7

9

8

동양잉크, 수출 활성화로 중국 시장 점유율 높여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동양잉크(대표 최대광)는 중국 시장에서의 위상과 전시회에 참가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지난 2001년 중국 시장 개척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1회 이상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온 동양잉크는 중국 남부지역은 물론 동남아 최대의 전시회로 부상한 프린트차이나 전시회를 야심차게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 진출 초기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브랜드 홍보와 대리점 발굴에 전념했으며 어느 정도 내수 기반이 다져진 2007년 이후에는 기존 대리점과의 교류와 해외 신규거래처 상담을 염두에 두고 전시회를 준비했다. 동양잉크는 중국 시장 진출의 전후하여 한국본사에서 수출하는 국가의 수가 약 20개국에서 100% 증가한 40여 개국에 이르면 수출액은 연간 1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동양잉크의 중국 현지법인인 수입판매 2000톤, 현지 제조 판매 4000톤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중국내 기반 다져

동양잉크 해외영업본부장인 임기범 상무는 동양잉크는 중국 현지법인인 제남황관유목유한공사를 설립,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남유목의 설비와 인력을 인수하여 독자법인으로 출발하였고 2008년에는 현재의 부지(4만 평방미터)로 확장, 이전하는 등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현재 연산 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10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수입판매를 제외한 올해 판매목표는 4600톤으로 매출액은 1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양잉크는 현재 오프셋잉크 위주의 사업에서 수성잉크와 그라비아 잉크 사업을 추가하여 종합잉크 메이커로의 면모를 중국시장에서도 드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업체는 일본 DIC, 토요(TOYO), 토카(TOKA), 상해 목단 등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제품 공급으로 시장악화에 대처

동양잉크는 최근 중국 인쇄시장도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 등으로 사업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프린트차이나 전시회에 이어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상해 전국인쇄전에도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인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ECO-MAX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포장인쇄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륙지방의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선, 기술력으로 중국시장 공략 나서

기선(대표 김춘학)은 당초 이번 전시회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김춘학 대표는 현재 기선은 내수 시장보다는 국제 시장을 무대로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보다는 다른 곳에서 좋은 반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시장은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아 도전할 만한 시장이지만 워낙 변수가 많고 불법적인 제품 복제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공략해 나갈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비 불법복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중국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맞는 맞춤형 제품으로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선은 이번 프린트차이나에서 일 평균 100여명, 총 500여명이 자사의 부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상담건수는 150여건에 달했으며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코팅기, 커버제작기, 바인더 등이었다고 밝혔다. 기선의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총 계약실적

은 6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선은 현재 디지털 인쇄물 전용 코팅기인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UV코터, 자동 압축제책기인 디지털 바인더, 자동 오시기 및 공급기, POD용 싸바리기계인 디지털케이스, 합본기인 디지털 케이스인, 자동 센터테이핑기인 디지털 씨테이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선의 코팅기는 까다로운 토너잉크 등 전 디지털 인쇄물이 코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선의 디지털 바인더는 지난 2009년 하반기에 판매를 시작한 이래 해외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제품 중 하나로 기선의 주력제품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독창적(Creative), 경제적(cost economical), 편리한(Easily operative) 제품을 꾸준히 개발, 생산, 보급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11



12

10_프린트차이나 2011에 참여한 기선

11_홍콩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후 악수를 하고있는 김춘학(오른쪽)대표.

12_기선 전시부스

메탈스틱, 뛰어난 시각 효과로 호응 받아

메탈스틱(대표 박철영)은 시작은 다른 분야였으나 도금과 인쇄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중국전시회에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참가했으나 일 평균 1천명 이상이 부스를 찾았으며 상담 건수도 30여건에 달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한 회사와 총판 계약 상담을 했으며 계약 규모는 1억원 선이라고 메탈스틱은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명함, 패키지, 상표 등이었으며 중국 대리점을 하고자 문의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았으며 인도,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 이탈리아, 이집트, 사우디 등에서의 바이어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급 제품에 뛰어난 시각효과 유발해

메탈스틱은 24K 금도금, 은도금을 비롯, 크롬 도금, 무전해니켈 등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도금용 마이크로 패턴을 개발해 감각적인 표면처리기술을 구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금박을 더할 경우, 아름답고 화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탈스틱의 박철영 대표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특수인쇄경험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 메탈스티커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첨단 설계로 제작된 마이크로패턴을 이용해 일반적인 금박이나 메탈스티커에서 거둘 수 없는 고급스럽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뛰어난 생산기술을 결합시켜 뛰어난 평활도와 강도를 갖고 있어 내구성에 있어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고급 인쇄물에 후가공하는 데는 매우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회 참가전에는 중국 인쇄시장의 상위 1%를 겨냥하고 천천히 준비해가겠다던 메탈스틱은 뛰어난 제품 경쟁력에 힘입어 처음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메탈스틱의 다음 행보가 주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3. 프린트차이나 2011에 참여한 메탈스틱
14, 15_설명중인 메탈스틱 관계자



피에스텍, UV램프용 안정기로 중국시장 타진

IT기업인 피에스텍(대표 성환호) 이번 전시회에 UV램프용 전자식 안정기(3, 5, 12kw급)를 선보였다. 매일 4~50명의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했으며 상담실적은 일 평균 5~6건에 달했다. 인쇄 관련 분야가 회사의 주력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이번 전시회에 처음부터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국 인쇄시장의 분위기를 맞본 만큼 중국의 UV시스템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품의 건조 및 경화속도가 수초내로 이루어지는 UV는 인쇄물의 후가공에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친환경성이 좋고 자외선으로 경화된 제품의 표면이 강한 경도를 가지기 때문에 패키지 분야에서 그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피에스텍이 공급하고 있는 UV램프 전자식 안정기는 UV램프를 점등하는 전자식 안정기로서 동급 최소형의 크기를 자랑한다. 충분히 냉각된 상태에서 고압 방전으로 점등되며, 램프가 안정될 때까지 약 40초~3분 가량 소요

되어 기존의 안정기에 비해 짧은 예열시간을 자랑한다. 피에스텍은 안정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양한 용량의 UV램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삼호 부장 kshulk@print.or.kr



16, 17, 18 프린트차이나 2011에 참여한 피에스텍